

# 價格差別化 복귀 모색하는 OPEC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OPEC (石油輸出國機構)가 原油의 고정가격제도에로의 복귀를 위해서 또 다시 油價差別化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월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열린 OPEC총회에서 영향력있는 3人價格委員會는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유지와 가격체제에 대한 OPEC의 역할회복을 위해서 고정가격제가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OPEC가 주도하는 고정가격제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同위원회는 原油바스켓에 기초한 참고가격을 배럴당 18달러로 제시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이 가격수준을 지지하고, 이를 도약대로 삼아 이란이 요구하는 배럴당 28달러의 참고가격수준까지 추가인상을 의중에 두고 있다.

그러나 IEA (國際에너지機構)의 연구보고는 90년대 전반기까지는 76년 이전가격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油價가 90년대초에도 배럴당 15-20달러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며, 앞으로 10여년동안에는 최근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배럴당 25-30달러의 油價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OPEC原油에 대한 수요는 최근의 16-17백만b/d로부터 90년대초에 22-24백만b/d로 증가할 것이며, 금세기말까지 26-28백만b/d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만일 OPEC가 희망하는 바대로 油價가 상승한다면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인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반대로 油價가 배럴당 15-20달러 이하로 하락한다면 수요

가 증가하여 油價가 복원될 것이라고 IEA는 지적한다.

## ◇ 목표는 일치하나 수단에서는 見解差

쿠웨이트의 알사바石油相이 위원장으로 있는 OPEC의 가격위원회는 12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OPEC총회에서 油價차별화제도의 심의를 안건으로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격위원회는 쿠웨이트의 의장을 비롯하여 리비아의 사크수키, 에콰도르의 테란石油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키토회의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나제르 신임석유상과 베네수엘라의 그리산티장관도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제르 사우디석유상은 原油價가 배럴당 18달러의 고정가격으로 조속히 복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파드國王은 이를 추후 가격인상을 위한 첫단계로서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상했던대로 이란은 사우디의 새로운 가격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 사우디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에 있어서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란은 지금까지 減産을 주장해온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페르시아灣 產油國들은 시장점유율 확대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감산없이도 原油의 고정가격체제에는 이란도 동의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란의 아그자드石油

相은 이란은 배럴당 28달러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논의되고 있는 배럴당 18달러의 고정가격은 배럴당 28달러 성취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이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그하자드는 현재 OPEC의 생산상한제 실시 결정으로 추가의 減産없이도 배럴당 18달러의 油價달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OPEC가 배럴당 18달러 이하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단합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심리적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네트백거래, 특별할인판매 및 현재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타 변칙판매 등은 최소한의 가격 방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그는 생산조정자(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을 하나의 국가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OPEC가 집단으로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렸다.

이란의 아르테빌리석유차관은 테헤란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石油相간에 광범위한 접촉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결과가 油價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은 사우디의 석유정책전환 조짐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사우디의 정책전환은 이란으로하여금 페르시아灣 인접국들과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 同床異夢의 GCC

GCC(페르시아灣協力協議會) 중 OPEC회원국인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은 11월초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석유가격결정에 대한 공동접근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한 최종 코뮌니케는 없었지만, 배럴당 18달러의 고정油價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들은 시장점유율확대정책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목표는 OPEC產油量중에서 GCC국가의 보다 많은 세어 확보와 세계석유시장에서 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다. 그러나 외부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모순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OPEC의 產油量이 현재보다 60만~80만 b/d 감축돼야 배럴당 18달러의 油價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에 대해 키토회의가 끝난 후 쿠웨이트의 石油相은 OPEC가 감산없이 배럴당 18달러

油價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식판매가격 준수를 위해서는 OPEC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키토회의에서는 고정참고가격제 실시에 있어서 종전의 아라비안라이트의 기준원유시스템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격위원회에 의하면, API 비중 32-44°에 속하는 7개油種의 basket 가치에 의하여 참고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바스킷에 포함될 原油는 아라비안라이트, 두바이, 인도네시아의 미나스, 나이지리아의 보니라이트, 알제리의 사하라브렌드, 베네수엘라의 티아후아나라이트, 그리고 유일하게 非OPEC의 멕시코產 이스무스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OPEC의 油價전문가들에게는 原油바스킷을 기초로 한 차별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매달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라는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 ◇ OECD의 產油量 감소추세

油價붕괴와 유전개발활동의 부진에 따라 2000년까지(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국가들의 석유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油價가 86년도 전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OECD의 생산량은 85년의 17.1백만 b/d에서 1.5-2.5백만b/d 감소할 것이라고 IEA는 예상한 바 있었다. 그러나 油價가 폭락한 지금은 그보다 1-1.5백만b/d 더 감소한 13.1-14백만b/d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OECD의 석유수요는 향후 5년동안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OGJ 11월 24일자)

